# 달빛 아래 '걷기명상'…평화를 기원하다

## 범어사, 10월 17~18일 청룡동 및 경내 일원서 개산대재

**시민과 함께 묵언 명상걷기 체험**
**세계평화 기원하며 싱잉볼 명상도**
**법요식, 의상대사 창건 뜻 되새겨**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개산대재를 맞아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개산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범어사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범어사 일원에서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제1346주년 개산대재 - 화엄의 세계를 만나다'를 봉행했다.

개산대재는 의상대사가 화엄십찰로 창건한 범어사의 화엄사상을 기리고 시민들과 명상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먼저 범어사는 10월 17일 부산 청룡동 일원에서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달빛 명상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개산대재를 기념하며 전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해 신도, 지역민들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불을 밝힌 LED 초를 손에 들고 묵언한 채 고요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둥근 달은 구름 낀 하늘에서 어두운 곳을 지날 때 마다 무명을 밝히듯 비췄고 선두에선 스님들의 발자취를 따라 참가자들은 호흡을 알아차리며 걸음을 옮겼다. 보제루 앞 마당에 도착하자 명상을 알리는 싱잉볼 소리가 울려 퍼졌고 선명상을 안내하는 방장 정여 스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정여 스님의 '세계평화를 위한 선언문'에 동참하며 손을 모으고 "원효 선사의 화쟁 사상으로 인류가 화합하고 다툼이 없는 세계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했다.

범어사에 진행한 달빛 명상 걷기대회는 경동아파트 입구부터 보제루 앞 마당까지 2.2km를 걸었고, 싱잉볼 명상 및 다양한 공연 관람도 이어졌다.



범어사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범어사 일원에서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제1346주년 개산대재 · 화엄의 세계를 만나다'를 봉행했다.

이어 개산대재 법요식은 10월 18일 경내 보제루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봉행됐다.

원효대사의 창건 정신을 기리는 법요식에는 방장 정여 스님, 주지 정오 스님, 강주 용학 스님을 비롯해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장, 이헌승 국회정각회 회장, 윤일현 금정구청장 등이 동참했다.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는 "1346년이라는 오랜 세월과 전통을 이어온 범어사는 때묻거나 물들지않고 굳건히 이 자리를 지켜왔다. 오고 감이 없는 이 마음을 비워놓고 연꽃처럼, 가을 국화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키워야 한다"며 "이것이 화엄이며 화쟁이다"고 법문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앞으로 범어사는 여러 생의 모든 인연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따를 수 있도록 법등을 밝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불교聯, 호국사상 되새긴 팔관회 봉행

**10월 19일~21일, 경내 일원**
**미래세대 수계의식 봉행**
**백희가무로 호국사상 고취**
**전통 팔관회 의식 재현도**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범어사 경내 일원과 구 박물관 옆 특설무대에서 '2024 팔관회'를 봉행했다.

팔관회는 19일에 미래세대에게 불교 가치를 전하기 위한 '선재동자 수계법회 및 마정수기'를 개최했다. 선재동자 수계법회에서는 선재동자 어린이 20명이 계를 받았으며 마정수기 법회에서는 영유아 어린이들이 관정의식에 참여했다. 마정수기 법회에서 회장 정오 스님은 영유아 에게 관정의식을 진행하며 축원하고, 스님의 가사로 제작한 낙자와 염주를 목에 둘러주었다.



부산불교연합회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범어사 경내 일원과 구 박물관 옆 특설무대에서 '2024 팔관회'를 봉행했다.

20일에는 호국기원법회와 백희가무가 봉행됐으며, 21일에는 호국영령위령재를 봉행해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으며, 팔관재계 수계법회로 마무리됐다. 위령재는 군 관계자 및 보훈 단체 관계자가 동참해 의미를 더했으며, 수계법회는 고증에 따라 재현한 의식으로 진행됐다. 3화상은 회장 정오 스님,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상임부회장 마나 스님이 담당했으며 16증사가 법좌에 올라 수계식을 증명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은 "팔재계를 수지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맑고 고결한 삶을 실천하는 중요한 실천"이라며 "국가의 안락은 개인의 청정한 계행에서 비롯된다는 선조들의 믿음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은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적인 갈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팔관회 정신으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화합을 이끌어내는 지혜로운 길을 찾는다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고 기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통도사, 훈민정음 이전 문자생활 조명

**10월 20일 추계학술대회**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10월 20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2024년 영축총림 통도사 추계학술대회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문자생활-향찰·이두·구결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사진〉

허인영 인하대 조교수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 불교 차자표기법의 특징'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양혜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조선전기 진언류 언해의 역사적 의미-고려후기 이래 진언 표기를 중심으로'를, 하정수 동국대 연구교수는 '고려시대 석가탑 묵서지편과 공문서의 차자표기-인명과 물명을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한글 발전에 영향을 끼친 불교의 역할을 조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태승 전 위덕대 교수 등이 나서 심도 있는 학술토론의 장을 펼쳤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선광사, 제 23회 장학금 전달

**10월 20일, 孝경로잔치도**

부산 백양산 선광사(주지 성문 스님)가 10월 20일 경내에서 '제23회 장학금 전달식 및 효(孝)경로잔치를 봉행했다.〈사진〉

방송인 MC 조영구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 경주 무량사 조실 원명 스님, 일심회 회장 혜정 스님, 김대식 사상구 국회의원 등과 지역 어르신이 함께했다.

장학금은 대덕여고 3학년 임수현 학생 외 20명의 학생에게 각 30만 원 총 63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은 "학생 여러분들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존재"라며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자신을 금강석과 같은 보석같은 존재로 만드시길 바란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 강용창 회장, 경찰청장賞 수상

**제79회 경찰의 날 행사**

강용창 부산경찰청불자회장이 제79회 경찰의 날 행사에서 경찰청장상을 수상했다.〈사진〉

행사는 10월 21일 사상경찰서 5층 누리홀에서 진행됐으며, 개식사, 순국 경찰관에 대한 묵념, 유공자 포상 수여 순으로 이어졌다. 강용창 회장(사상경찰서 경리 경감)은 "우리 경찰청 동료 직원분들께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안전하고 무탈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기원한다. 아울러 경승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경찰청불자회의 화합과 내실을 다지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 생명나눔부산, 창립 18주년 어울림 마당

**10월 19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가 창립 18주년을 맞아 10월 19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리갤러리 및 문화홀에서 '라온(LA·溫)어울림 마당'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관심과 격려를 보낸 후원자를 위해 열렸으며 일일찻집도 진행돼 난치병 환우 치료비 기금 마련을 위한 나눔의 장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에 이어 축하공연은 홍법사 동림합창단, 플롯 및 피아노 연주, 음성공양이 마련됐다. 2부 순서에서는 본부장 심산 스님과 함께하는 '나눔 토크(Talk)'가 열렸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법주사, '百味百樂' 향연 펼치다

**10월 18일 1472주기 개산대재**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가 10월 18일 경내 일원에서 '1472주기 개산대재'를 개최했다.〈사진〉 행사는 다양한 사찰음식과 세계 음식을 선보이는 자리로, 백 가지 맛과 즐거움이 담긴 '백미백락(百味百樂)' 음식축제가 됐다.



지장사, 용화사, 탈골암, 월명사에서 다채로운 사찰음식을 선보였으며 태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등 다문화 가정이 고국의 음식을 전시·시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충주 미륵세계사, 미륵대불 점안

**10월 19일, 새로운 도약 다짐**

충주 미륵세계사(주지 법초 스님)가 10월 19일 경내 미륵대불 앞 기도단에서 '미륵대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점안법회는 석불과 석굴의 정비를 위해 10년간의 보수가 끝난 뒤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법초 스님은 "점안법회를 계기로 정진해, 미륵세계사가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며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에 미륵대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봉려관불교硏, '근대 제주불교사' 조명

**11월 16일, 학술세미나 개최**

(사)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원장 혜달 스님)은 11월 16일 오후 1시 30분 제주시 테크노파크 10층 1001호 세미나실에서 '근대 제주불교역사 그 진실을 찾다Ⅳ'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성수 불교신문 편집국장은 '일제강점기 호남 부호 국채웅의 생애와 사회적 기여'를,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은 '근대 제주불교의 왜곡상 고찰'을 각각 발표한다. 또한 민순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원은 '봉려관 스님과 대흥사의 교류'를 발표한다.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은 "왜곡된 제주불교사를 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바른 역사가 정립될 때 비로소 참신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 있는 불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010)9185-1004 신중일 기자

# 무량사, 설잠 스님 기리는 다례재 봉행

**10월 20일, 극락전 앞마당서**

부여 무량사에서 입적한 설잠 스님(매월당 김시습)의 넋을 기리는 행사가 진행됐다.〈사진〉




부여 무량사(주지 정덕 스님)가 10월 20일 경내 극락전 앞마당에서 설잠 스님의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 앞서 산신재도 함께 설행됐다. 최종대 포교사단 대전·세종·충남 지역단장 및 포교사들과 참여대중은 이운 의식에 함께하며 전통의식을 재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파계사, 입시생 위한 수계법회

**수험생 · 학부모 대상 100여 명**

대학입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합동수계법회가 열렸다. 대구 팔공산 파계사(주지 현봉 스님)는 10월 20일 경내 설법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수계법회는 주지 현봉 스님을 수계법사로 총무 명진 스님을 인례사로 진행됐다. 수계를 받은 수험생과 학부모 100여 명은 부처님 법을 따르는 진정한 불제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 청곡장학재단, 예비군승에 장학금 지원

**법원 스님 "불법홍포 씨앗 되길"**

병원 운영금을 사회에 환원해 온 청곡문화장학재단이 미래 예비군승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청곡문화장학재단(이사장 유영화)은 10월 23일 보라매법당 대웅전에서 예비군승 지홍 스님, 원묘 스님, 보광 스님, 금곡 스님, 화산 스님에게 각 2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오늘 지급된 장학금이 훌륭한 씨앗이 되어 불법을 홍포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